

삼진·파트너스 우승... 후회없이 즐긴 모두가 챔피언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사회인 야구 광일리그에서 우승한 삼진이 이승신 감독을 헝가래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사회인 야구 무등리그에서 우승한 파트너스가 김창근 감독을 헝가래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광일리그 '삼진' 구원 등판 남준성 호투... 청운에너지에 7-6 역전승 무등리그 '파트너스' 에어패스 제구 난조·실책에 일찍 승리 9-3 대승

광주·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 무등기 열전이 21일 막을 내렸다.

광일리그에서는 (주)삼진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지난해 광일리그 우승팀 파트너스는 리그를 바꿔 이번에는 무등리그 정상에 올랐다.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전이 21일 합평 야구장에서 열렸다.

10월 10일 시작된 무등기의 '마지막 승부'는 삼진과 청운에너지(광일리그) 파트너스와 에어패스 파죽지세(무등리그)의 대결로 전개됐다.

삼진은 구원 등판한 남준성의 호투를 앞세워 7-6 역전승을 거뒀다.

시작은 좋지 못했다. 오종신의 볼넷으로 1회를 시작했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초반 수비 실수가 이어지면서 1-6으로 2회가 끝났다.

3회 사사구와 상대 실책 등으로 살아나간 김영재, 이현, 남준성이 홈에 들어오면서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남준성이 구원 투수로 자리를 옮겨 청운에너지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타자들은 매 이닝 1점씩 보태며 힘을 냈다. 그리고 시간제한에 따라 6회에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7-6으로 삼진이 승리를 거뒀다.

삼진의 우승을 이끈 이승신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고, 승리를 지킨 남준성이 최우수 선수로 됐다. 청운에너지 내야수 박오차는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파트너스와 에어패스 파죽지세는 초반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1회 1점씩 주고받은 뒤 두 팀의 선발 김영복과 이창수가 실점 없이 2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3회와 4회 파트너스가 상대의 제구 난조로 분위기를 뒀다. 상대의 실책까지 더해 순식간에 7-1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파트너스의 톱타자 김대원은 세 타석 연속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며 2득점을 올리기도 했다.

2회부터 5회까지 침묵했던 에어패스가 6회 임승현의 적시타로 점수를 보낸 뒤 7회 서호선·장덕진·허경훈의 연속 3안타로 막판 추격에 나섰다. 경기는 9-3 파트너스의 승리로 끝났다.

파트너스의 김창근 감독이 최우수감독 트로피를 차지했고, 톱타자 겸 유격수로 활약한 김대원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마지막까지 파죽지세의 마운드를 지킨 이창수는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심판상은 박래준 심판위원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일보사·전남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과 함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과 함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결승 전적
- ◆1경기(광일리그)
(주)삼진 013111-7
청운에너지 330000-6
▲최우수 감독 : 이승신 ▲최우수 선수 : 남준성 ▲우수선수 : 박오차
- ◆2경기(무등리그)
파트너스 1024110-9
에어패스 파죽지세 1000011-3
▲최우수 감독 : 김창근 ▲최우수 선수 : 김대원 ▲우수선수 : 이창수

광일리그 '삼진' 우승팀 감독·최우수 선수 인터뷰 무등리그 '파트너스'

“부상 선수 없는 승리 더 기뻐”

이승신 삼진 감독

“선수를 덕분이다”며 이승신 감독은 선수들에게 우승의 공을 돌렸다.

(주)삼진은 광일리그 강력한 우승후보로 결승까지 진출했다. 예상과 달리 1-2회 6실점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 삼진의 저력을 보여주며 역전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 감독은 “무등기에 몇 번 나왔는데 이번에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우승을 하게 됐다”며 “선수들에게 고맙다. 선수들이 안 다치고 경기를 즐겨서 좋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초반 팀이 흔들릴 때 이 감독은 차분하게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뒷심싸움의 승자가 됐다. 그는 삼진을 ‘아빠와 아들 같은 팀’이라고 말한다.

이 감독은 “젊은 층이 많다. 아빠와 아들 같은 팀이다. 나이 차가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삼진의 방향을 이야기했다.

지난 준결승전이 우승까지 오는 데 가장 큰 고비였다.

이 감독은 “준결승할 때 까다로운 상대(뉴욕야시장)를 만났는데 그 경기가 가장 어려웠다. 오늘도 초반에 흔들렸는데 선수들이 재정비 잘해서 좋은 결과 냈다. 선수들이 잘해줬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팀원간의 믿음이 우승 원동력”

‘MVP’ 투수 남준성



“팀을 믿고 제 할 일을 하자는 생각뿐이었는데, 대회도 우승하고 좋은 상까지 타게 됐습니다.”

날카로운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을 돌려세운 남준성(24)이 광일리그 MVP에 선정됐다.

그는 “날씨가 추워서인지 변화구 제구가 잘 안 됐다”면서 “지구와 체인지업을 위주로 타이밍 속이기로 경기 풀어나갔다. 평소처럼 하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남준성은 (주)삼진이 4-6으로 고전하던 중 구원투수로 등판, 이후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그는 팀원들 간 믿음이 우승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 수비 실수가 몇 번 나오면서 분위기가 넘어가고, 점수차도 크게 났었다”며 “팀원들도 저를 믿고, 저도 팀을 믿으면서 한 점씩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끝에 이길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남준성은 10여년 전 광주일고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야구를 시작했으며, 6년 전부터 사회인 야구에 발을 들였다. 그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쌓은 좋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다음 목표는 무등리그 2연패”

김창근 파트너스 감독

“다음 목표는 무등리그 2연패입니다.”

지난해 광일리그에 이어 올해 무등리그에서도 우승기를 거머쥔 김창근(52) 파트너스 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몸 관리조차 어려운 시국이었던 만큼 오늘 우승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1회에 점수를 많이 낼 계획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4회 이후부터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연습량이 부족해 걱정이었다고 한다. 타격 레슨, 원포인트 레슨 등을 통해 꾸준히 연습하며 오늘 경기를 준비해 온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팀이 하나로 뭉쳐 서로 믿고 땀 흘리고, 실수 하더라도 다독여주며 협동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인 야구는 멘탈이다. 분위기가 넘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멘탈을 유지한 덕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내년에도 무등리그에 출전, 대회 2연패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각종 전국대회에 나서 광주 야구를 많이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제 전국대회 우승 노릴 것”

‘MVP’ 타자 김대원



무등리그 MVP 김대원은 “열심히 해왔는데 상복이 없었다.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김대원은 톱타자와 유격수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파트너스 우승 중심에 섰다. 이날 결승전에서는 세 타석 연속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적극적인 내주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며 “1번을 치는데 빠른 발이 장점이다. 내가 나가면 무조건 1점을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수비다. 이날 안타성 타구를 점프해 처리하는 호수비를 보여줬지만 몇 차례 실수가 아쉽다.

김대원은 “초반에 에러도 하고, 선상에서 실수도 했다. 나 때문에 초반에 1점을 줘서 미안하다”며 “유격수가 수비 중심이 돼야 한다. 남들보다 한 발 더 뛰고 움직이면서 아웃카운트 잡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수비연습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등기 2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앞으로 서울에 있는 전국대회에서 광주·전남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